



참다운 자기이해와 화해의 출발로서의 과거사 청산 곽태영과 함께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1944) -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요즘 우리 사회는 커다란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한편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명분 자체에는 노골적으로 반대를 못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사는 단지 과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규정될 수도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 대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스며 있는 일제 식민주의와 군부 독재의 잔재 청산일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모두 걸쳐 있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 씨에 대한 평가만큼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박정희 씨를 친일청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로 이해하면서, 가려져 있는 그의 면모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곽태영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68)를 만나 보았다.

2000년 11월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하다 연행되기도 하고 2002년에는 탑골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쓴 '삼일문' 현판을 떼어내 부숴버려 200만 원 벌금을 내기도 하고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곽태영 대표가 이처럼 박정희 씨에 대해 치열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립군을 죽인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손으로 쓴 글씨가 3·1운동의 신성한 유적지에 버젓이 내걸려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의 현장인 지금의 문래공원에 그의 흉상을 세워놓다니요! 게다가 기념관까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현판을 부수면서 동상을 무너뜨리면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위한 불도저에 매달리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일그러진 역사를 허물어뜨리고 건강한 역사를 세워야 한다고.”

일그러진 역사를 허물고 건강한 역사를 세워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았던 첫 인상과 달리 박정희 씨에 대한 의견을 토해내면서 그의 표정은 바뀌어 갔고 그 비장함은 필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결코 기념할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삶은 민족과 반민족, 민주와 독재 그리고 통일과 반통일이라는 가치관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오욕의 역사 과정에서 그는 일관되게 반민족, 독재, 반통일의 길을 걸은 아니 주도한 사람입니다.” 곽 대표는 이어서 “그가 보릿고개를 몰아내고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박정희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가 추진했다는 경제발

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은 그의 군홧발에 짓밟혀버린 장면 정권이 이미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거기에 비싼 이자주면서 외채 끌어다가 한 경제 발전을 누가 하든 못 했겠어요? 그 잘못된 경제정책이 쌓이고 쌓여서 IMF가 온 거예요.” 광 대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단호했다. “백보 양보해서 그가 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조국을 배신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일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을 죽인 그를 도저히 옹호할 수 없습니다.”

광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철저한 민족주의자임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었다. 거기에 대한 사연이 궁금했다. “우리 집안이 항일집안이었어요. 숙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셔서 훈장을 받기도 하셨죠. 김구 선생을 도와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지요. 크면서 집안에서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심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시다.” 집안 분위기는 그의 인생관을 형성시켜준 결정적인 계기였던 듯 하다.

항일집안에서 성장

그는 청년기에 김구 선생을 암살하여 민족정기를 훼손시킨 안두희를 잡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암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마음먹었다. 19세가 되던 1955년 1월, 평생에 걸쳐 존경하고 흠모하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 앞으로 10년 안에 안두희를 찾아 꼭 모든 것을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결코 껍기가 아니었다.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안두희를 추적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당시 강원도에서 납세 1위를



탐골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삼일문' 현판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2001년)

자랑하며 호가호위하던 안두희의 행방을 찾기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 겨우 행방은 찾았으나 경호원에게 둘러 쌓여있는 안두희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던 와중에 4·19가 터졌고, 경무대 앞 시위에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백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던 광 대표는 4·19혁명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지금은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 대표의 삶을 들으면서 그가 애기했던 우리 현대사의 끝나지 않은 이분법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족(독

립)-민주와 반민족(친일)-독재라는 이분법을!

현대사의 끝나지 않은 이분법

광 대표는 김구 선생과 약속한 10년이 되던 1965년 12월 말에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안두희와 대면했으나 저항하는 그에게서 암살사건에 대한 자백을 다 받지는 못 했다. 당수 3단에 유도 3단이었던 안두희는 그러나 격투 끝에 젊은 청년 광태영 옆에 쓰러졌다. 역시 만신창이가 되었던 광 대표는 출동한 경찰을 뿌리치고 “김구 선생님 만세, 3천만 국민 만세”를 외치며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경찰서로 향했다. 그를 지켜보던 촌로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광 대표 구명운동이 일어나 애국청년 살리기 130만 서명운동이 있었고 변호사 64명이 무료변론을 해줬다고 한다. 그에 힘입어 광 대표는 감옥생활 7개월 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문에서 담당판사는 “피고는 개인 문제가 아닌 민족공분에 의해서 한 행동이므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49년 소위 시절에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는 결국 대령으로 예편했고 그 뒤에는 군납사업으로 평평거리며 잘 살았어요. 물론 암살 직후에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 안두희가 자기 재판의 방청권을 나눠줄 정도로 당당했고 6·25가 터지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출소 명령서를 발부하여 출옥 후에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중위로 승진했어요. 원래 별 하나가 맡아야 하는 부산병참기지 사령관을 중령 신분으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승만이 시켜서 암살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아 다녔지요.”

우리의 아픈 현대사의 한 대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현대사를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갔던 한 청년의 의로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앞으로 유구한 역사가 없다면 모를까, 우리는 역사를 이어줘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박정희의 기념관을 만드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새로운 증오와 분열과 갈등을 경계해야

박정희 씨의 친일 행각 및 독재시절에 저질러던 무수히 많은 인권 유린 행위 등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그의 단호한 강조는 과거사가 결코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한다. 실제 과거사 청산에서 화해와 용서라는 논리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라는 생각의 숭고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긴 하나, 이것이 자칫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안두희를 응징한 광태영 대표의 행동을 기리며 강원도의 청년들이 세운 기념비와 안내문



이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건설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이다.

과거사 청산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참다운 용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용기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 상호간의 의미 있는 결합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절제의 덕 또한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과제일수록, 우리는 과거사 청산이 새로운 증오와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와 남북분단 및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시절로 점철된 현대사와는 다른 밝은 미래를 개척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평생을 일그러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광태영 대표와 함께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본다.

〈황정욱〉